

[이스라엘] 모피 No! 비건패션 Yes!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09. 24.)



이스라엘에서는 동물 가죽이나 모피로 제작된 패션 제품을 판매 금지하는 등 동물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비건 패션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12월부터 이스라엘 내 패션용 모피 제품 판매 전면 금지
 - 이스라엘 환경보호부는 2021년 6월 9일, 모피나 동물 가죽을 사용하는 패션 제품의 생산·판매·수출을 금지하는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였으며 개정안은 공표일로부터 6개월(180일) 뒤 발효될 예정
 - 이스라엘은 모피 의류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 최초의 국가
- 종교전통 유지를 위한 모피 제품 등 제한된 용도의 예외적 판매 허용
 - 이스라엘 내 가장 큰 모피제품 소비층은 ‘하시딤(Hasidic Judasim)’이라 불리는 유대종교 전통주의자들로, 하시딤 남성들은 성년이 되거나 결혼을 하면 ‘슈트레이멜(Shtreime)’이라고 불리는 모피 모자를 착용
 - 주로 여우나 토끼, 담비의 모피로 제작. 하시딤 인구가 성장할수록 슈트레이멜 소비도 지속되므로 종교 목적의 모피 제품 판매를 허용
 - 그 외에도 교육, 행정명령집행, 연구 목적, 개인의 의지에 다른 수입(개인용)은 허용
 -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예외적 목적을 위해 수입이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보호부에서 발급하는 특별 허가를 반드시 사전 취득



슈트레이멜(Shtreime) 모자 사진
자료: 현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yad2.co.il)

■ 동물 윤리를 인식한 패션제품 생산, 소비 추세 확산 전망

- 이스라엘의 모피 패션제품 판매 금지 조치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패션 산업 내 동물 제품 사용에 대한 윤리 의식 제고 움직임은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스라엘은 동물 윤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매우 높은 편으로 현지 언론사가 실시한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채식주의자는 전체 인구의 8%, 채식주의 식단을 고려하는 인구는 전체의 13%
- 이스라엘 채식주의 문화는 음식을 넘어 패션 업계로도 확산되어 동물가죽이나 털을 사용하지 않고, 버섯가죽이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등의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 가방, 신발, 벨트, 의류를 제작하는 비건 브랜드가 주목 받기 시작

브랜드명	로고	주요 취급 품목	웹사이트
Lee Coren	LEE COREN	가방	https://www.leecoren.com/
Roni Kantor	Ⓜ️ Roni Kantor	드레스 슈즈	https://www.ronikantor.co.il/

자료: Vegan-friendly, 2021년

■ 시사점

- 동물가죽이나 모피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 이번 법률 개정은 비건 패션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
-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동물 농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성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모피 판매 금지 규정 발효가 비건 패션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는 것
- 이스라엘 비건 패션 시장 진출을 위해 사용 소재와 제조공정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소비를 중요시하고 일상 패션 소품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으로 제품의 디자인적 요소도 매우 중요
-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 대비 채식주의 인구의 비율이 높고, 채식에 관심을 가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스라엘의 비건 패션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 구매력도 충분히 높아 이스라엘의 비건 패션 시장 성장 추세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